

#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Study on Factors for Efficacy and Purpose of Starting Business after Middle Aged Workers' Retirement

최명화, 조성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Myung-hwa Choi(mwsarang5629@hanmail.net), Sung-sook Cho(sscho49@hoseo.edu)

### 요약

본 연구는 중년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이들 종속변수들과 창업자 개인의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소재, 그리고 가족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중년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46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통제소재가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이 높고 둘째, 혁신성, 성취욕구 그리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가족지지는 성취욕구와 창업효능감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그리고 창업의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났다.

■ 중심어 : | 창업효능감 | 창업의도 | 개인특성 | 가족지지 |

###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acy and purpose of starting new business after their retirement of middle-aged office workers. The study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 founder's innovational mind, achievement desire, risk-taking mind and family support. For the purpos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346 middle-aged employees working in Seoul and Kyonggi-do are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ersonal achievement desire and risk-taking mind strongly affected the efficacy of starting new business. Second, innovational mind, achievement desire and risk-taking min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rpose of starting new business. Third, family support had a moderate effect between achievement desire and the efficacy of the starting new business.

■ keyword : | Efficacy of Starting Business | Purpose of Starting Business | Personal Characteristics | Family Support |

## I. 서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 세

계적인 고령화 현상을 불러와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시대가 눈앞에 다가왔

접수번호 : 2014년 04월 09일

접수일자 : 2014년 06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6월 16일

교신저자 : 조성숙, e-mail : sscho49@hoseo.edu

다. 우리나라도 1903년 25.8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12년 81.3세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1], 실제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장수는 축복이지만 노후가 길어진 만큼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즉 고령화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자본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축율의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의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비중은 감소하게 되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소득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즉 공적이전이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헝가리와 프랑스가 소득 중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15.7%로 핀란드(15.0%)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59%에 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한국노인의 빈곤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노동시장 정책 및 세금제도의 변화, 적절한 의료·주거·사회서비스 등의 다각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소득수준의 향상은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나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으나,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옛말처럼 개인 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즉 개인 각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스스로 일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평생직장의 개념이 실종되고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숫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 창업이 그 대안이라고 하겠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이 실시한 국내 시니어들의 창업관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46%가 창업에 대한 의사가 있으며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에서도 63%는 경제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정적으로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중소기업청). 따라서 실제 창업에 대한 이들의 니즈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55세 이상 인구 800만 명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456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중기청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년도 50세 이상 창업자 수가 22,300 여 명(중기청 신설법인 동향, 201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니어 창업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서(30%), 실패에 대한 부담감(22.6%), 창업자 마인드가 부족해서(19.8%),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8%), 창업 정보가 부족해서(9.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들 요인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창업의도를 저하시켜 실제 창업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로는 시니어창업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보다 상세한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시니어 창업에 대한 연구실적은 매우 희소한 편이며, 그 중 창업의도 관련 연구는 불과 몇 편에 불과하다. 예컨대, 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경우, 창업자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고, 환경적 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향과 자신감 그리고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그리고 창업의도의 형성을 예측하고 창업의도가 창업행동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들 가운데 하나인 창업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4]. 이처럼 시니어 창업관련 연구들이 매우 단편적이고 또 그 연구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시니어 창업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시니어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은 대학생을 위시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연구결과들을 당장의 창업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금의 직장인들의 빠른 퇴직을 고려하여, 40세 이상의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 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5], 시니어 창업에 가족 지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년 직장인들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 직장인들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조절역할을 하는가?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채택한 변수들은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시니어 창업

창업이란 기업가(起業家)의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적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본, 사람, 설비 및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시니어 창업가(senior entrepreneur)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6]. 또한 국내 총 인구의 14.6%에 달하는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에 출생한 세대)가 2010년에 대부분의 기업 정년퇴직 연령인 만 55세에 달해, 이들의 은퇴 후 구

직난이 본격화 되면서 그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rkebauer는 기업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50세 이상의 창업가의 창업을 시니어 창업가(seniorpreneur)로 정의하였고[7], Baucus와 Human[8]은 '제2의 경력 창업가(Second career entrepreneur)'라고 정의하고 기존 창업이 아닌 50세 이상 시니어에 의해 새롭게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Blackburn 등[9]은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시니어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개인을 '제3세대 창업가(the third age entrepreneur)'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과 호주의 통계국에서는 50세 이상을 출발점으로 퇴직한 개인의 창업을 의미한다[10]. 이상에서 살펴 본 정의들을 기초로 시니어 창업을 새롭게 정리하면 '청·장년기에 직업활동을 하고, 퇴직한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니어가 창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시니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창업정책'을 본격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이후 시니어 창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중소기업청, 2013), 50세 이후 창업자들(표본 284명)의 업종이 농림어업 33.8%, 도소매·숙박 및 음식업 26.8% 등으로 나타난 박미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다수 시니어 창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종으로 종업원 10인 미만의 자영업에 치우쳐 있다. 특히 50세 이후 창업자 중 창업 전 업종과 현 업종이 다른 경우가 79.9%를 나타내고 있어 창업의 생존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11].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니어 창업자들이 자영업에서 이탈시 인적자본 등에 있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12].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 시니어들의 창업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보고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약하고, 창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또한 시니어 창업자의 비경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

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니어가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건전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강력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은퇴를 앞 둔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은퇴 후 창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창업의도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며[13], 창업단계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4]. 즉 창업을 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의지 또는 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창업의도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업가적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창업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의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Fishbein과 Aizen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해 설명된다[15]. 계획된 행동모델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도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도 개인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16]. 이처럼 창업의도가 창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여 왔고, 창업의도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

창업은 창업자의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Naffziger 등[17]은 전체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가 개인의 특성,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금확보의 용이성과 같은 사업의 환경, 사업 아이디어, 창업이 가져 올 이익 등의 성과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Reynolds[18]는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환경, 개인의 삶과 경력환경, 개인의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의 Hallam 교수 등[19]이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과 Luthje등[20]의 모델을 기초로 제안한 ACE모델(ACE Model : A Model for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그림 1].

모델에 따르면, 창업의 바람직함(perceived desirability), 개인의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perceived feasibility)가 창업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문에서 창업교육, 사례연구, 성공한 초청연사들의 강연 등은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이는 개인의 기대하는 결과(expected outcomes)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창업환경에서 실무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펀딩(funding), 멘토링(mentoring), 보육(incubating)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준비와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인지는 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특성(personality trait)은 개인의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본적인 영향요인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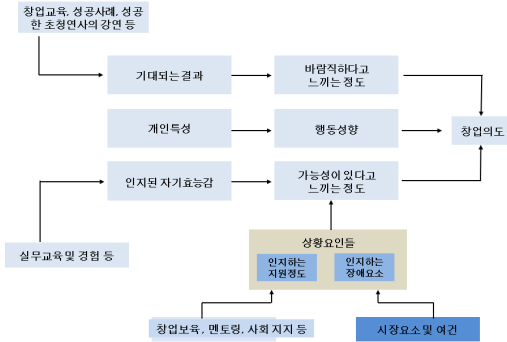


그림 1. ACE모델(A Model for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

자료: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에서

창업가의 개인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Cromie와 O'Donoghue는 Caird[21]의 연구 등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통해 창업가의 7가지 개인특성으로 성취욕구(Need to achieve),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자율욕구(Need to Autonomy), 창의성(Creative Tendency), 계산된 위험감수성(Calculated Risk Taking), 모호성의 수용(Tolerance for Ambiguity), 그리고 자신감(Self-Confidence)을 제시하였다. Mohar Yusof 등[2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적 성향(entrepreneurial inclination)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위험감수성향, 창의성,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그리고 통제위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또는 지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들 변수와 창업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환경요인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 중 성취욕구, 통제소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혁신성을 그 영향변수로 채용하였다.

## 2.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 성취욕구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가 기업가정신과 관련될 것이라는 예상과 연구는 어느 특성보다도 먼저 시도되었으며[23], 창업가가 보다 높은 성취욕구를 가졌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24]. 따라서 이 같은 성향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비록 그 대상과 조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에 일관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조영준과 이승희[25]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 그리고 사업전략의 준비정도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상권 등[26]은 호텔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리사들의 경력, 창업에 관한 조리사들의 자기효능감, 도전정신, 창업지식 그리고 창업자금의 준비정도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 2.2 통제소재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을 내적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하고 어떤 사건이 우연, 운, 또는 운명 등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을 외적통제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한다[27]. 많은 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8].

박시사와 강성일[29]은 여행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적자본(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근무경험 등) 중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성취욕구, 내적통제소재, 자기효능감) 중 내적통제와 자기효능감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 2.3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propensity to take risk)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하며[30],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인이다[31]. 따라서 위험감수성향이 강한 창업자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 즉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넘친다.

많은 경제와 기업가정신관련 연구문헌에는 위험부담(risk-taking)을 기업가의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최양림과 하규수[32]는 직장인들의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 자기효능감) 중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불안정성) 중 부정적 창업인식과 고용불안정성이 창업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창수와 김진수[33]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시니어창업 스쿨'을 이수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은 창업태도(창업에 대한 매력, 창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역량(기회포착,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등)은 창업태도, 인지된 행동통제(창업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 2.4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이란 사업을 새롭게 독특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고[34], 스펀터에 의하면 기업가적 특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5]. 기업가정신관련 연구문헌에 의하면 기업가는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훨씬 혁신적이라고 한다[36].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이경원 등[3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구성된 창업특성요인으로 혁신성,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향, 내·외적 통제성, 그리

고 성과지향성의 6개의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모든 요인이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혁신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성과지향성 만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5 가족지지

최근 조직과 전략을 연구하는 경영학자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자원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38].

가족이 제공하는 기능의 하나인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39]. 즉,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기능 모두를 포함한다[40]. 이처럼 가족은 사회적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차집단의 가장 좋은 표본이고, 상호 책임감, 돌봄과 관심, 밀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지지, 애정, 안전을 공급하는 특성을 가진다[41].

김미숙과 김영국[42]은 관광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위치, 가족역할모델 즉, 창업한 가족과 함께 성장한 개인, 교육 즉, 창업에 대한 교과과정의 적절성, 다양성, 정보제공 정도, 조직적 요인 즉, 창업에 대한 학교의 정책적·인력·시설의 지원정도,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하규수와 윤백중[43]은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태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의 영향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승배와 유왕진[44]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약한 유대관계(구조적관계)와 인지적 차원(창업 조직 구성원간의 비전공유 정도)이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남춘애 등[5]은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6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특수한 형태로서 최근 창업연구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창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의 형성을 예측하고 창업의도가 창업행동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45]. 하지만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크고 창업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상황을 자기 생각을 펼쳐나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Krueger와 Brazeal[46]은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의 하나로 제안했다. 유봉호[47]는 청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즉, 위험감수성, 진취성, 내적 통제소재, 그리고 내재적 동기가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수이고, 창업효능감은 창업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의 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 중 성취욕구, 통제소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혁신성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이들 변수와 창업효능감 그리고 창업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하였듯이 아직 은퇴하지 않은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 환경요인 등을 고려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퇴 후 개인의 생활에서 가족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48],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지지의 역할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성공적 창업의 핵심적 심리 특성으

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창업효능감을 창업의도와 함께 종속변수로 채용하였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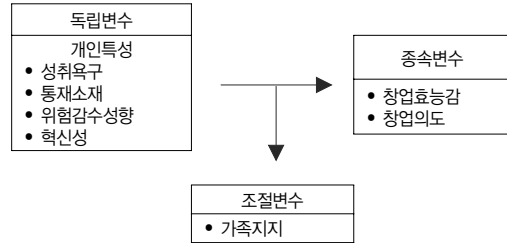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2.1 개인특성

성취욕구는 Mohar Yusof 등[22]이 사용한 척도를 상황에 맞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했으며, “나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항상) 창업자가 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제소재도 성취욕구와 마찬가지로 Mohar Yusof 등[22]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나는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성공이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다” “나는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최양림·하규수[3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위험이 있을 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일단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위험이나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혁신성의 척도는 Mohar Yusof 등[22]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새롭고 보다 좋은 접근법을 찾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도전한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 2.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Cobb[49]의 도구를 강현숙[50]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을 한 것을 이미란[51]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의 가족은 나에게 물질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나의 가족은 내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으로 도와준다,”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의 고민거리를 도와준다”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 2.3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Mohar Yusof 등[22]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바로 창업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 후 일전기간 준비 후 창업할 계획이다”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 2.4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며, 측정은 위기대응력과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자기관리능력, 창의성,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며 Wilson 등[52]이 이용했고, 김미숙과 김영국[42]이 사용한 문항으로, “나는 창업에서 여러 문제가 부딪치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에 부딪치

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직원들을 격려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 2.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350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값이 없는 34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 18.0)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4.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4.1 개인특성

개인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16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이상으로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2.684%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혁신성 0.911, 성취욕구 0.868, 위험감수성향 0.859, 통제소재 0.815로 나타났으며, 개인특성을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 4.2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에서 고유치 1.0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10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이상으로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2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7.595%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창업효능감 0.928, 창업의도 0.924로 나타났으며,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를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신뢰도 수준은 매우 높았다.

4.3 가족지지

가족지지의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4개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0.5이상으로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가족지지’ 요인은 전체 분산의 73.719%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869로 나타남으로써 측정항목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표 1. 개인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설문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치	분산 % (누적분산)	신뢰 계수
혁신성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기 좋아한다.	.842	3.111	19.442 (19.442)	.911
	나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도전한다.	.803			
	나는 항상 새롭고 보다 좋은 방법을 찾는다.	.778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772			
성취 욕구	나는 사회생활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	.882	3.070	19.188 (38.630)	.868
	나는 나의 신분과 명망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	.832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36			
	나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항상 관심이 있다.	.696			
위험 감수 성향	나는 일단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843	2.848	17.798 (56.428)	.859
	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위험이나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한다.	.822			
	나는 비록 위험이 있을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88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	.637			
통제 소재	나는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777	2.601	16.256 (72.684)	.815
	나는 내가 확신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752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	.738			
	나는 성공이 자기 자신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627			

표 2.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설문항목	요인적재량	고유치	분산 % (누적분산)	신뢰 계수
창업 효능감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865	3.898	38.975 (38.975)	.928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858			
	나는 창업에서 여러 문제가 부딪치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858			
	나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845			
	나는 창업에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841			
창업 의도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	.903	3.862	38.620 (77.595)	.924
	나는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892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869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 후 바로 창업할 계획이다.	.834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 준비 후에 창업할 계획이다.	.738			

표 3. 가족지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설문항목	요인적재량	고유치	분산 % (누적분산)	신뢰 계수
가족지지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943	2.949	73.719 (73.719)	.869
	나의 가족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의 고민거리를 들어준다.	.911			
	나의 가족은 내가 이쁠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으로 도와준다.	.901			
	나의 가족은 나에게 물질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647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를 [표 4]에서 보면, 회귀모형은  $F=7.822$ 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가 31.4%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개인특성의 성취욕구( $t=3.775, p<.001$ )와 위험감수성향( $t=2.011, p<.05$ ), 통제소재( $t=2.217, p<.05$ )가 창업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욕구( $\beta=.194$ )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므로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감수성향과 통제성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혁신성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위험감수성과 내적통제소재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봉호[4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특성으로 사회생활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거나 신분, 명망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는 등 성취욕구가 높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회를 잡으려 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창업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4.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beta$	t
개인특성	혁신성	.104	.096	1.473
	성취욕구	.253	.236	3.775***
	위험감수성향	.130	.124	2.011*
	통제소재	.165	.142	2.217*
F		7.822***		
R2		.314		
$\Delta R2$		.182		

\* $p<.05$ , \*\* $p<.01$ , \*\*\* $p<.001$ .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2.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은 [표 5]에서와 같이  $F=9.876$ 으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가 36.6%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1단계보다 28.0% 증가한 결과였으며, 개인특성의 모든 요인이 창업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혁신성( $t=2.714, p<.01$ )과 성취욕구( $t=6.064, p<.001$ ), 위험감수성향( $t=8.725, p<.001$ )은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성취욕구가 높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창업의도에 대한 위험감수성향( $\beta=.516$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창업의도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통제소재( $t=-3.068, p<.01$ )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제소재가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통제소재의 경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성향으로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보다는 다른 형태로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beta$	t
개인특성	혁신성	.221	.170	2.714**
	성취욕구	.469	.365	6.064***
	위험감수성향	.652	.516	8.725***
	통제소재	-.265	-.189	-3.068**
F		9.876***		
R2		.366		
$\Delta R2$		.2		

\* $p<.05$ , \*\* $p<.01$ , \*\*\* $p<.001$ .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영준과 이승희[25]등, 최양림과 하규수[32], 성창수와 김진수[33], 이정원[37]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단 통제소재는 박시사와 강성일[29]의 연구에서는 정(+)의 영향을 나타낸 것과 달리 나타났다. 이는 박시사와 강성일은 대상이 30세 이하가 대부분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중년을 대상으로 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3.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

표 6.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혁신성	.104	.096	1.473	.086	.079	1.222	.067	.062	.947
성취욕구	.253	.236	3.775***	.217	.203	3.204**	.195	.183	2.867**
위험감수성향	.130	.124	2.011*	.130	.123	2.024*	.162	.154	2.405*
통제소재	.165	.142	2.217*	.127	.108	1.681	.113	.097	1.458
가족지지				.161	.149	2.692**	.141	.130	2.362*
혁신성*가족지지							.133	.115	1.356
성취욕구*가족지지							.225	.234	2.666**
위험감수성향*가족지지							.091	.081	1.176
통제소재*가족지지							.092	.092	1.012
F	7.822***			7.936***			7.134***		
R2	.314			.329			.349		
ΔR2				.015			.020		

\*p<.05, \*\*p<.01, \*\*\*p<.001.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통제된 후 개인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둘째, 2단계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특성과 가족지지를 센터링한 후 두 변인을 곱한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을 분석하여 판단하였다. 즉, 조절변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면 순수조절변수(pure moderator)이고,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quasi moderator)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절변수만 유의하다면 이는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하지 않으면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2단계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의 결정계수의 변화량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6], 2단계 모형에서 가족지지의 추가 투입 시 F=7.936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효능감에 대하여 32.9%의 설명력을 보여 1단계보다 1.5% 증

가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의 경우 F=7.134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효능감에 대해 34.9%를 설명함으로써 2단계보다 2.0% 증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특성의 성취욕구(t=2.867, p<.01)와 위험감수성향(t=2.405, p<.05)이 창업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가족지지(t=2.362, p<.05)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취욕구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t=2.666, p<.01)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지지는 성취욕구와 창업효능감 사이에서 유사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명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성취욕구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족지지는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인 ‘가족지지는 중년 직장인의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는 일부 채택되는 결과를 보였다.

#### 4. 개인특성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개인특성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t	B	$\beta$	t	B	$\beta$	t
혁신성		.104	.096	1.473	.086	.079	1.222	.067	.062	.947
성취욕구		.253	.236	3.775***	.217	.203	3.204**	.195	.183	2.867**
위험감수성향		.130	.124	2.011*	.130	.123	2.024*	.162	.154	2.405*
통제소재		.165	.142	2.217*	.127	.108	1.681	.113	.097	1.458
가족지지					.161	.149	2.692**	.141	.130	2.362*
혁신성*가족지지								.133	.115	1.356
성취욕구*가족지지								.225	.234	2.666**
위험감수성향*가족지지								.091	.081	1.176
통제소재*가족지지								.092	.092	1.012
F		7.822***			7.936***			7.134***		
R2		.314			.329			.349		
$\Delta R2$					.015			.020		

\*p<.05, \*\*p<.01, \*\*\*p<.001.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2단계 모형에서 가족지지의 추가 투입 시 F=9.566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의도에 대하여 37.1%의 설명력을 보여 1단계보다 0.5% 증가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은 F=7.995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의도에 대해 37.5%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0.4% 증가함으로써 증가량이 미미하였다.

개인특성의 혁신성(t=2.796, p<.01)과 성취욕구(t=5.433, p<.001), 위험감수성향(t=8.001, p<.001), 통제소재(t=-3.119, p<.01)가 창업의도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와 상호작용항의 경우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점수를 분석 시 투입하였으며, 모집단이 2개 이하인 성별과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 유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연평균 소득, 직장 업종, 직급, 재직기간은 ANOVA

를 실시하였고, Scheffé법을 이용하여 사후다중비교를 하였다.

#### 5.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가족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 건강상태, 연평균 소득,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력, 직장 업종 및 직급에 따른 가족지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5.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위험감수성향에 차이가 있었고, 연평균 소득에서는 혁신성과 성취욕구의 차이를 보였으며, 직장 업종별로는 성취욕구와 통제소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과 건강상태, 직급에 따라서는 개인특성의 요인인 혁신성과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소재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족지지는 학력과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 건강상태, 연평균 소득,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력, 직장 업종 및 직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력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창업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고, 성별, 직장 업종,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현 직장에서의 직급별로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 요인들과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 그리고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시니어 창업에 관련된 정책 마련과 시니어 개인들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 관련 연구논문이 대부분이었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창업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게다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를 동시에 조합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급이 낮은 경우(대리급) 창업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고,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통제소재가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에 오랜 기간 적응한 결과 성취욕구라든가 위험감수성향 등이 낮아진 결과로 추론된다. 둘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살펴보면,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직급이 차장급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 혁신성이 높고, 성취욕구가 강하고, 위험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통제소

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중년을 대상으로 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 이유는 창업의 위험 부담을 잘 인지하고 있어 신중을 기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추론된다. 셋째, 가족지지는 성취욕구와 창업효능감 간의 관계에서만 정(+)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차이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가족지지는 성별, 학력, 직장 업종 및 직급 외에서는 모두 차이를 나타냈으며, 다)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통계결과 참조).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연구를 통해 시니어들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창업효능감과의 영향관계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급이 낮은 경우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직 기간이 길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장생활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니어들의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통제소재가 클수록 즉, 내적 통제소재가 강할수록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들이 연륜이 많아지면서 창업성공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을 잘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는 가설검증을 위한 설문대상을 특정 지역 즉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시행한 점과 설문위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면접을 통해 연구결과

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참 고 문 헌

- [1] 삼성경제연구소,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 2012.
- [2] 최양립,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 성장수,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4] 김해룡,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격 5요인 이론과 셀프리더십이론의 탐색적 적용-”,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6호(통권 71호), pp.2393-2420, 2008.
- [5] 남춘애, 고일성, 장희영, “비즈쿨교육특성, 사회적 지지 및 교유기반특성이 학습성과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원*, 제27권, 제21호, pp.1-26.
- [6] 이병희, 이상명, 최다운, “시니어 벤처기업의 경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통권 제29호)* pp.117-136, 2011.
- [7] J. B. Arkebaur, *Golden entrepreneurship : The mature person's guide to a successful business*, McGraw-Hill, Inc, New York, 1995.
- [8] D. Baucus and S. E. Human, “Second career entrepreneurs : A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 and antecedent variabl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9, pp.587-598, 1994.
- [9] R. Blackburn, M. Hart, and M. O'Reilly, “Entrepreneurship in the Third Age : New dawn or misplaced expectations?,” 23<sup>rd</sup> ISBA National Small Firms Policy and Research Conference, Aberden University, pp.1-17, 2000.
- [10] 박미현, *중고령자 자영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11] 박미현, 정영순, “중고령자 창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4호, pp.165-189, 2011.
- [12] 조병주, *칼 베스퍼(Karl H. Vesper, 1999), 기회 발견과 창업메카닉스*, 청아출판사, 서울, pp.71-84.
- [13] B. J. Bird,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3, pp.442-454, 1988.
- [14] N. F. Krueger and A. L.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5(5/6), pp.411-432, 2000.
- [15] M. Fishbein and I. Ai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New York, 1975.
- [16] A. Shapero,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C. A. Kent, D. L. Sexton, and K. H. Vesper, NJ, Prentice Hall, 1982.
- [17] D. W. Naffzer, J. S. Hornby, and D. F. Kuratko, “A proposal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pp.9-42, 1994.
- [18] P. D. Reynolds,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 Concepts and contribu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pp.47-70, 1992.
- [19] Cory R. A. Hallam, Anita Leffel, and David Womack,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PICMET 2008 proceedings*, pp.27-31 July, Cape Town, South Africa(c) 2008 PICMET.
- [20] C. N. Luthje and N. Franke,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 Testing a model of

-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Vol.33, No.2. pp.135-147, 2003.
- [21] S. Caird, *A review of methods of measuring enterprising attributes*, Durham : Dur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1998.
- [22] Mohar Yusof, Manjit Singh Sandhu, & Kamal Kishore Jai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clination : A case study of students at University Tun Abdul Razak(UNITAR0,"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Vol.III, Issue 2, 2007.
- [23] K. G. Shaver and L. R. Scott, "Person, process, choice : the psychology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pp.23-45, 1991.
- [24] S. Cromie, "Assessing entrepreneurial inclination : Some approaches and empirical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9, No.1, pp.7-30, 2000.
- [25] 조영준, 이승희, "창업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창업성과를 매개효과로," *디지털정책 연구*, 제10권, 제5호, pp.143-154, 2012.
- [26] 이상권, 조춘봉, 채규진, "호텔 조리사들의 경력, 심리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 *외식경영 연구*, Vol.15, No.4, pp.257-275, 2012.
- [27] J. B. Rotter,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 General and Applied*, Vol.80, No.1, p.609, 1966.
- [28] P. B. Robinson, D. V. Stimpson, J. C. Huefner, and H. K. Hunt,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5, No.4, pp.13-32, 1991a,
- [29] 박시사, 강성일,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60), pp.187-204, 2007.
- [30] R. H. Sr., Brockhaus, P. S. Horwitz,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 in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ed. D. L. Sexton & R. W. Smilor, Cambridge: Ballinger, pp.25-48, 1986.
- [31] R. Baron,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3, pp.328-340, 2008.
- [32] 최양림, 하규수, "직장인들의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9호, pp.195-212, 2012.
- [33] 성창수, 김진수,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3, No.3, pp.109-133, 2011.
- [34] P. B. Robinson, D. V. Stimpson, J. C. Huefner, H. K. Hunt,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5, No.4, pp.13-32, 1991a,
- [35] J. A. Scumps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 A. 1934.
- [36] Robinson 등, 1991a; Cromie, 2000, 상계논문
- [37] 이정원, 이재주, 김남현,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창업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 개인적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pp.267-286, 2013.
- [38] W. Mika and S. Senja, "A relationship valu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in networks of software SM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37, No.5, pp.492-501, 2008.
- [39]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40] 정지영, 임정하,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

정과교육학회지, 제23권, 제1호, pp.37-51, 2011.

[41] A. Dean and N. Lin,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65, No.6, pp.403-413, 1977.

[42] 김미숙, 김영국,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연구, Vol.15. No.4, pp.61-84. 2012.

[43] 하규수, 윤백중,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8, pp.3406-3414, 2011.

[44] 이승배, 유왕진,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8권, 제1호, pp.33-56, 2013.

[45] 김혜룡,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격 5요인으로과 셀프리더십이론의 탐색적 적용",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6호(통권 71호), pp.2393-2420, 2008.

[46] Jr. N. F. Krueger and D. V. Brazeal,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s : Theory & Practice, Vol.19, pp.91-104, 1994.

[47] 유봉호, "청년 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10호(통권 108호), pp.2669-2690, 2013

[48] 최명화, 최수일,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반월·시화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49-264, 2012.

[49]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s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50] 강현숙, *재활강화교육이 편마비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51] 이미란,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가족지지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52] F. Wilson, J. Kickul, and D. Marlino,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1, No.3, 2007

저 자 소 개

최 명 화(Myung-hwa Choi)

정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 등

조 성 숙(Sung-sook Cho)

정회원



• 1975년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경제학사)  
 • 1982년 :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석사  
 • 1987년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금융경제복지, 고령친화산업 등